

## 한국판 청소년용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2판 개발 연구

전 경 구	이 준 석 <sup>†</sup>	서 경 현	전 종 국	최 아 룬
한국 스트레스 관리 센터 대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청소년용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2판(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for adolescent)의 개발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미국판 아동·청소년용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2판(Brunner & Spielberger, 2009)에 기초하되, 개방식 질문지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문항을 포함했다. 그 결과, 미국판(35문항)에 비해서 2.7배 많은 95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1에서 예비 척도를 전국적인 편의 표집(N=359명)에 기초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문항-전체 상관을 살펴본 결과, 일부 문항이나 요인 구조가 검사에서 가정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문화에 알맞게 9문항을 교체한 후 다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내적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5가지 하위 검사(상태 분노 10문항, 특성 분노 10문항, 분노 억제 5문항, 분노 표출 5문항, 분노 조절 5문항)로 구성된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 3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전국적인 편의 표집(N=1,186명)을 실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별로 각각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5가지 하위 검사(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조절)로 구성된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상태 분노를 남학생과 여학생 별로 요인 분석과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상태 분노/일반적 분노 양상과 상태 분노/언어적·신체적 양상으로 구분되는 신뢰롭고 타당한 세부 검사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 분노가 특성 분노/특질과 특성 분노/반응으로 구분되는 신뢰롭고 타당한 세부 검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한국 문화에 알맞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는 장차 심리학, 의학, 간호학, 교육, 상담, 교정, 복지시설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주제어: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조절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준석,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Tel: 041-570-7968, E-mail: joonsuk@kornu.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스트레스의 핵심은 정서적 스트레스다(Cannon, 1914). 특히 분노가 불안, 우울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으며(DeSteno et al., 2013), 실제로 분노는 다양한 질병 또는 부적응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암(Hughes et al., 2024), 고혈압(Howell et al., 2007), 당뇨(Lica et al., 2021), 천식(Özyurt et al., 20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Kaczurkin et al., 2016), 불안 장애(Walsh et al., 2018), 우울 장애(Jackson et al., 2011), 자살(Daniel et al., 2009), 비만(Nichols et al., 2011), 흡연(Mischel et al., 2014), 청소년 비행(Goldstein et al., 2013), 학교 폭력(Tryastuti, 2022) 등. 이와 같은 분노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전 검구와 그의 동료들은 신뢰롭고 타당한 분노 검사를 개발해 왔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예: 전검구, 1996; Chon et al., 1998), 정서적 스트레스 검사(전검구 외,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2판(전검구 외, 2024).

하지만, 이 척도들은 모두 성인용 척도로서,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연령층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특히 장차 대한민국을 젊어지게 될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분노 척도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분노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분노 척도로서 아동·청소년용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2판(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for Child and Adolescent, STAXI-2 C/A)(Brunner &

Spielberger, 2009)의 국내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아동·청소년용 STAXI-2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로서 9세부터 18세까지 광범위한 연령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하지만 한국판에서는 사춘기 전 단계인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알맞은 분노 척도로 개발하였다. 우선 척도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성인용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Spielberger, 1988)와 유사하게 개발되었다. 다시 말해서 분노 경험과 관련해서 상태 분노(10문항)와 특성 분노(10문항), 그리고 분노 표현과 관련해서 분노 억제(5문항), 분노 표출(5문항), 분노 조절(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 상태 분노를 상태 분노-느낌(5문항)과 상태 분노-표현(5문항)으로 더 세분화하고 있으며, 특성 분노를 다시 특성 분노-특질(5문항)과 특성 분노-반응(5문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과정 가운데 예비 조사(N=359명)와 본 조사(N=1,186명)에 초점을 두어서 소개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지침서를 참고하기 바란다.<sup>1)</sup>

## 연구 1: 예비 조사

### 예비 문항 선별

새로운 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1)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판 청소년용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2판은 전문가 지침서(전검구 외, 2025)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타당화 조사(N=124)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의 요인 구조가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났으며, (2)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와 정서적 스트레스 검사 간에 만족스러운 공준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3)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의 5가지 하위 검사의 내적 일치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전반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가운데 하나는 초기에 적절한 문항들을 충분히 포함시키는 일이다. 검사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문항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할 경우, 이론적 근거가 아무리 탄탄하고 정교한 심리측정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Streiner & Norman, 2008).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한국 문화에 알맞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번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원천에 기초해서 예비 문항을 선별하였다.

**(1) 미국판 아동 청소년용 STAXI-2 문항 번안.**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미국판 아동·청소년용 STAXI-2에 수록된 문항들을 적절하게 번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 5명의 공저자가 각각 번역한 후 전체 번역어를 취합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하게 번역된 문항은 하나의 번안 문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상이하게 번역된 문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수의 번안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이미 한국판(성인용) STAXI-2가 국내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한국판(성인용) STAXI-2와 동일한 문항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2) 개방식 질문지 조사.** 한국 청소년들이 분노를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 150명 이상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개방식 질문지를 실시했다. 이렇게 수집된 개방식 질문지를 내용 분석한 후, 비록 미국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미 있게 여겨지는 반응을 예비 척도에 포함했다(예: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

**(3) 한국판 STAXI와 한국판 STAXI-2에서 수집된 자료 검토.** 청소년의 분노가 성인의 분

노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국판 STAXI와 한국판 STAXI-2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문항들을 재분석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문항들을 반영하였다(예: '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

**(4) 분노와 관련한 추가 개념 고찰.** 비록 아동 청소년용 STAXI-2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독성 분노(toxic anger, Gentry, 1999)에 관한 문항을 일부 포함했다(예: '나는 화를 자주 낸다'). 독성 분노란 분노의 '정도'가 너무 강하거나, '빈도'가 너무 잦거나, '기간'이 너무 오래가는 분노로서, 이러한 독성 분노는 신체적·정신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아동·청소년용 STAXI-2에서도 이와 같은 독성 분노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지만(예: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 한국판에서는 독성 분노의 개념을 추가로 포함했다. 아울러, 분노에 대한 관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분노 마음들(예: '나는 화를 속으로 삭이면 성숙한 인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화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숙한 인격이라고 생각한다')에 관한 문항들을 추가로 포함했다. 하지만, 분노 마음들의 경우 원 척도와 너무 다른 개념과 문항들을 포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최종적인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 95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척도를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예비 척도에 포함된 문항 수는 미국판 문항 수에 비해서 2.7배 정도 많게 포함되었다(덧 번하는 미국판에 포함된 문항 수): 상태 분노(15문항/10문항), 특성 분노(30문항/10문항), 분노 억제(15문항/5문항), 분노 표출(13문항/5문항), 분노 조절(16문

항/5문항), 분노 마음틀(5문항).

## 연구방법

95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척도는 미국판과 동일하게 세 가지 서로 다른 지시문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상태 분노'로서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정서 상태'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특성 분노'로서 '평소에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성향 또는 특성'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강조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노 표현'으로 화가 났을 때 '얼마나 자주' 각 문항에 대해 반응하는가를 답하도록 기술하였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지시문은 '상태 분노'와 관련해서 '정도'로 측정하고, '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과 관련해서 '빈도'로 측정하도록 기술되었다.

한편,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미국판 아동·청소년 STAXI-2와 달리, 그리고 미국판 (성인용) STAXI-2와 동일하게, 4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왜냐하면 3점 척도로 평정할 경우 '중앙집중 경향성'으로 인해 각 문항에 대한 변별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3점 척도 이하를 사용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4점 척도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 미국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검사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3점 척도를 사용했다고 판단되며, 한국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구성된 예비 척도를 일차적으로 5명의 청소년에게 시행했으며, 예비 검토 과정에서 (1) 참여자들의 문항 이해도, (2) 지시문의 전달 명료성, (3) 척도 응답 소요 시간 등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응답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 예비 조사 실시 및 절차

예비 조사는 2024년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온라인 검사로 진행하였으며,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응답은 참여자의 '솔직한' 응답이어야 하며, 둘째, 검사는 충분한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각 참여자에게는 '복식 호흡법'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참고로, 검사의 가장 앞부분에서 비밀 보장 등을 강조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등 5가지 항목에 관한 설명 및 동의를 받았다.

예비 조사는 전국적인 편의 표집( $N=459$ 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 조사의 목적상 성별과 학년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되, 지역별 요인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표집이 이루어졌다. 한편, 수집된 자료 가운데 불성실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제거하였다: (1) 연구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자료(2명), (2) 세 가지 방식의 분노 표현(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조절) 문항이 교대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7문항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자료(90명), (3) 성별과 학년에 대하여 이중으로 반응한 자료(8명). 그 결과, 최종적으로 359명 자료가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 측정도구

앞에서 기술했듯이 95문항으로 구성된 예비 척

도를 사용했으며, 참여자의 솔직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실시되었다.

## 결과 및 논의

###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예비 조사 자료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56.5%)과 여학생(43.5%)이 비교적 균등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비록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적게 포함되어 있지만, 각 학년이 비교적 고르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15.3%), 중학교 2학년(15.3%), 중학교 3학년(9.2%), 고등학교 1학년(26.7%), 고등학교 2학년(20.6%), 고등학교 3학년(12.8%).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서울/경기도/인천(12.5%), 강원도(24.5%), 충청도/대전/세종(37.3%), 경상도/부산/대구/울산(7.8%), 전라도/광주(12.8%), 제주도(5.0%).

### 요인 분석 및 내적 일치도

예비 조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주제는 과연 미국판 아동·청소년용 STAXI-2 문항들이 한국 문화에서도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전에 개발된 분노 검사를 살펴보면 한국판 STAXI의 경우 전체 44문항 가운데 4문항(분노 억제 2문항, 분노 표출 2문항)이 교체되었으며, 한국판 STAXI-2의 경우 전체 57문항 가운데 11문항이 교체되었다(특성 분노 2문항, 분노 억제 1문항, 분노 표출 2문항, 분노 조절/내부 3문항, 분노 조절/외부 3문항). 특히 한국판 STAXI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단계에 거친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4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에 기초해서 미국판 문항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일부 문항을 교체할지를 예비 조사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았으며, 지면 제약상 분노 경험에 초점을 두어서 기술하겠다.

우선, 일차적으로 2개 이상의 번역어 가운데 가장 적절한 문항을 선발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과 문항-전체 상관 결과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나는 일을 잘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신경질이 난다’, ‘나는 내가 잘한 일을 아무도 몰라주면 신경질이 난다’, ‘나는 내가 잘한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면 신경질이 난다’ 라는 세 가지 문항 가운데 문항-전체 상관계수와 요인 부하량을 근거로 ‘나는 내가 잘한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면 신경질이 난다’를 선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선발된 분노 경험 검사(20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주축 요인 추출법(Principal Axis Solution)을, 그리고 회전방식으로는 프로맥스 회전(Promax Rotation)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두 요인이 전체 변량의 52.07%를 설명해 주고 있었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분노 검사에서 가정하는 대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2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래 검사에서 측정하는 개념과 달리 특성 분노의 한 문항(미칠 듯이 화가 난다, I get mad)이 특성 분노 요인에 포함되지 않고 상태 분노 요인에 포함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상태 분노에 11문

항이 포함되고, 특성 분노에 9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STAXI와 한국판 STAXI-2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듯이 한국 문화에 적절한 분노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 문항을 교체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부 문항을 교체해서 다시 한번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두 요인이 전체 변량의 58.88%를 설명해 주었으며,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상태 분노(10문항)와 특성 분노(10문항)가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는 2개의 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문화에 알맞은 문항으로 교체했을 때 비로소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에서 측정하는 분노 경험 검사가 매우 타당한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편,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94와 .91로 산출되었다. 이는 Nunnally(1978)가 제시한 신뢰도 기준치(.70)를 상회하는 수치로 본 척도가 내적 일치도 면에서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교체된 분노 경험 문항

표 1. 미국판 문항에 기초한 분노 경험 2 요인의 요인부하량과 Cronbach's Alphas

문항	상태 분노	특성 분노
화가 난다	.92	
짜증이 난다	.86	
기분이 나쁘다	.81	
무언가를 던지고 싶다	.80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	.78	
소리지르고 싶다	.73	
신경질이 난다	.69	
크게 고통치고 싶다	.64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62	
누군가를 발로 차고 싶다	.57	
미칠 듯이 화가 난다	.50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난다		.83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소리 지르고 싶다		.80
내가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화가 난다		.80
부당하게 벌을 받으면 미쳐 버린다		.71
내가 잘한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면 신경질이 난다		.64
욕하는 성질이 있다		.62
순식간에 화가 난다		.56
토라지거나 똥해 진다		.50
화가 난다		.41
Eigenvalues	8.60	1.82
Variance explained	52.07%	9.08%
Alphas	( $\alpha$ =.93)	( $\alpha$ =.89)

주. 1. 문항은 축약된 내용임. 2. 요인 부하량 .35 이하 생략

은 다음과 같다. 상태 분노(2문항): ‘나는 크게 고함치고 싶다’, ‘나는 누군가를 발로 차고 싶다’ → ‘나는 욕을 퍼붓고 싶다’, ‘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 특성 분노(4문항): ‘나는 미칠 듯이 화가 난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부당하게 벌을 받으면 미쳐 버린다’, ‘나는 토라지거나 똥해

진다.’ →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 ‘불같은 성질을 지녔다’, ‘나는 화를 자주 낸다’, ‘나는 쉽게 화를 낸다.’<sup>2)</sup> 참고로, 한국 문화에 알맞게 교체된 분노 경험 검사 결과(표 2 참조)를 미국판 문항에 기초한 검사 결과(표 1 참조)와 비교해 보면 (1) 분노 경험 검사가 가정하듯이 요인 구조가

표 2. 일부 문항 교체 후 분노 경험 2 요인의 요인부하량과 Cronbach's Alphas

문항	상태 분노	특성 분노
화가 난다	.89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	.81	
기분이 나쁘다	.81	
무언가를 던지고 싶다	.81	
욕을 퍼붓고 싶다	.78	
짜증이 난다	.77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	.75	
소리지르고 싶다	.70	
신경질이 난다	.69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64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난다		.79
내가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화가 난다		.78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소리 지르고 싶다		.75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		.73
쉽게 화를 낸다		.73
내가 잘한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면 신경질이 난다		.71
욱하는 성질이 있다		.70
화를 자주 낸다		.69
순식간에 화가 난다		.68
불 같은 성질을 지녔다		.62
Eigenvalues	9.34	2.04
Variance explained	58.88%	46.70%
Alphas	( $\alpha$ =.94)	( $\alpha$ =.91)

주. 1. 문항은 축약된 내용임. 2. 요인 부하량 .35 이하 생략

2)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기술을 생략하고 있지만, 분노 표현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항이 교체되었다. 분노 억제(2문항): ‘나는 화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다’ → ‘속으로 화를 낸다’, ‘화를 속으로 삭인다’; 분노 표출(1문항): ‘나는 문을 팡 닫는 식의 행동을 한다’ → ‘언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총 9문항이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에서 교체되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났으며, (2) 내적 일치도가 더 양호하게 나타났으며(.94, .91 vs .93, .89), (3) 설명 변량(58.88% vs 52.07%)이 증가되는 등 다양한 지표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분노 표현 검사의 경우 검사에서 가정하는 요인구조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서 타당한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더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일부 문항에서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문을 팡 닫는 식의 행동을 한다’의 경우 한국판 STAXI와 STAXI-2 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문항으로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삭제된 문항이었다. 또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다’의 경우 다른 문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었다(.38). 따라서 잠재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항들을 교체했다. 분노 억제(2 문항): ‘화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는다’, ‘화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 → ‘속으로 화를 낸다’, ‘화를 속으로 삭인다’; 분노 표출(1 문항): ‘나는 문을 팡 닫는 식의 행동을 한다’ → ‘언성을 높인다’

이처럼 일부 문항을 교체한 결과, 미국판 문항에 기초했을 때보다 요인부하량과 내적 일치도에서 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문화에 알맞은 문항으로 교체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양호한 검사가 될 수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 문화에 알맞은 문항으로 교체한 결과 비로소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 2: 본 조사

연구 1에서 개발된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 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과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된 표집에서도 신뢰롭고 타당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한편, 연구 2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더 양호한 검사 개발을 위해서 예비 검사에서 선발된 문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다. 그 결과, 3문항에 대해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1) ‘화가 난 것을 표시한다’ → ‘화가 난 것을 표현한다’ (2) ‘침착함을 유지한다’ →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여유를 가지고 진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 ‘여유를 가지고 진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예: 운동, 음악감상, 산책 등)’. 각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유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항의 경우 원 문항이 ‘I show my anger’인 바, ‘표시’보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여서 수정했다. 두 번째 문항의 경우, 청소년 단계에서 ‘침착함을 유지한다’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의 경우 ‘무언가를 한다’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더 구체적인 예를 괄호 안에 넣기로 했다. 이때 괄호 안에 포함된 예들은 개방식 질문지에서 나타난 반응들이다.

## 연구 방법

### 표집 방법 및 참여자

본 조사는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

행되었으며, 온라인 검사( $N=1,183$ )와 오프라인 검사( $N=146$ )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되었음에도 두 가지 자료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병합시켰다( $N=1,329$ )<sup>3)</sup>. 한편, 전체 자료 가운데 동의서에 찬성하지 않은 사례( $N=10$ )와 불성실한 자료( $N=133$ )를 삭제한 후 최종적으로 1,18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때 불성실한 자료의 기준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조사 실시 및 절차

5명의 공저자가 권역별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때 온라인 검사에서는 연구 1과 동일하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응답은 참여자의 ‘솔직한’ 응답이어야 하며, 둘째, 검사는 충분한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각 참여자에게는 ‘심상법’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였다. 오프라인 검사는 전라도의 한 지역(전주)에서 실시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를 병합해서 처리했다.

### 측정 도구

앞에서 언급한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를 사용하였다. 예비 검사와 마찬가지로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했으며, 상태 분노는 ‘정도’로, 그리고 특성 분노와 분노 표현은 ‘빈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의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상태분노 척도의 신뢰도는 .93, 특성분노 척도의 신뢰도는 .89, 분노표현 척도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 결과 및 논의

### 인구통계학적 속성

본 조사 자료를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인구 분포(2021년 기준)와 유사하게 표집이 되었다. 다만, 인구 분포에 비해 전라도/광주 지역이 많이 포함된 반면,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에서 적게 포함되었다(표집 분포/인구 분포): 서울/경기도/인천(34.6%/50.4%), 강원도(2.6%/2.9%), 충청도/대전/세종(10.0%/10.9%), 경상도/부산/대구/울산(30.8%/24.7%), 전라도/광주(19.8%/9.8%), 제주도(2.2%/1.3%).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6:4 정도로 많이 포함되었다(남학생, 59.7%, 여학생, 40.3%). 끝으로, 학년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1학년이 다소 많이 포함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다소 적게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 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18.0%), 중학교 2학년(16.4%), 중학교 3학년(18.6%), 고등학교 1학년(24.8%), 고등학교 2학년(18.2%), 고등학교 3학년(4.0%).

### 요인 분석 및 내적 일치도

3) 두 집단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시행한 결과 35문항 가운데 9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검사장의 조도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Anastasi & Urbina, 1997)를 고려해 보면 집단 간 차이가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타당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자료를 병합해서 처리했다.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는 5가지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 분노, 특성 분노,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조절. 아래에서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에 관한 결과를 각각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분노 경험

분노 경험에 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구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두 요인이 전체 변량의 49.95%(남학생)에서 53.97%(여학생)를 설명해 주고 있었으며,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의 요인 구조가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표 3.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노 경험 2요인의 요인 부하량과 Cronbach's Alphas

하위 검사/문항	요인 1		요인 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상태 분노</b>				
무언가를 던지고 싶다	.81	.80		
신경질이 난다	.77	.67		
짜증이 난다	.76	.74		
화가 난다	.76	.79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	.74	.77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	.73	.84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72	.75		
욕을 퍼붓고 싶다	.72	.79		
기분이 나쁘다	.71	.78		
소리 지르고 싶다	.67	.64		
<b>특성 분노</b>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 받으면 화가 난다			.72	.65
욕하는 성질이 있다			.72	.75
화를 쉽게 낸다			.71	.74
화를 자주 낸다			.69	.78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화가 난다			.68	.66
잘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소리지르고 싶다			.67	.68
순식간에 화가 난다			.66	.71
내 뜻대로 안되면 화가 난다			.63	.70
불 같은 성질을 지녔다			.60	.75
잘한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면 신경질이 난다			.50	.53
Eigenvalues	7.94	8.40	2.05	2.40
Variation explained	남자(49.95%), 여자(53.97%)		39.72%	41.98%
Alphas	.92	.93	.91	.87

주. 1. 문항은 축약된 내용임. 2. 요인 부하량 .35 이하 생략

모두 타당한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상태 분노는 남학생 .92, 여학생 .93, 특성 분노는 남학생 .91, 여학생 .87로 산출되었다. Nunnally(1978)가 제시한 신뢰도 기준치(.70)를 상회하는 수치로 본 척도가 내적 일치도 면에서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에서 가정하는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의 내적 일치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한국판 청소년용 분노 경험 검사가 신뢰롭고 타

당한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분노 표현**

분노 표현에 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세 요인이 전체 변량의 45.55%(남학생)에서 48.58%(여학생)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표 4 참조).

표 4에서 보듯이 분노 억제, 분노 표출, 분노 조절의 세 요인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 검사에 대한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의 내적 일치도가 나타났

표 4.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노 표현 3인의 요인 부하량과 Cronbach's Alphas

하위 검사/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분노 억제</b>								
화난 것을 숨긴다	.73	.76						
화를 속으로 참는다	.72	.87						
미칠 듯이 화나지만 표현하지 않는다	.71	.71						
속으로 화를 낸다	.70	.54						
속으로 삭인다	.67	.73						
<b>분노 조절</b>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78	.58				
화난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한다			.71	.63				
진정하려고 노력한다			.59	.75				
여유를 가지고 진정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예: 운동, 음악감상, 산책 등)			.57	.38				
긴장을 풀고 이완하려고 노력한다			.54	.69				
<b>분노 표출</b>								
말다툼을 한다					.66	.65		
언성을 높인다					.66	.74		
화가 난 것을 표현한다					.61	.57		
화를 참지 못한다					.58	.62		
못된 말을 한다					.57	.70		
Eigenvalues	6.37	4.17	4.04	2.29	1.85	0.83		
Variation explained	남자(45.55%)	여자(48.58%)	26.66%	27.82%	13.61%	15.25%	5.28%	5.51%
Alphas	.84	.85	.78	.77	.75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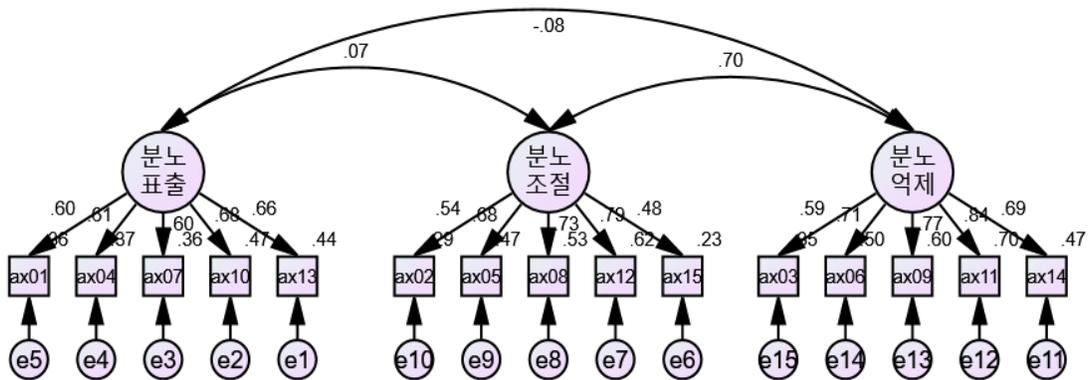


그림1. 분노경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다: (남학생): 분노 억제(.84), 분노 표출(.75), 분노 조절(.78); (여학생): 분노 억제(.85), 분노 표출(.79), 분노 조절(.77).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에서 측정하는 3가지 분노 표현 검사가 만족스러운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료를 통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chi^2/df=4.891$ , GFI(Goodness of Fit Index)=.954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937 CFI(Comparative Fit Index)=.942, NFI(Normed Fit Index)=.929, RMSEA(Root Mean square

표 5.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태 분노 세부 검사의 요인 부하량과 Cronbach's Alphas

세부 검사/문항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상태 분노/언어적·신체적 양상</b>				
무언가를 던지고 싶다	.81	.92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	.76	.85		
소리지르고 싶다	.73	.65		
욕을 퍼붓고 싶다	.69	.65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64	.62		
<b>상태 분노/일반적 분노 양상</b>				
화가 난다			.92	.86
짜증이 난다			.82	.90
신경질이 난다			.78	.86
기분이 나쁘다			.62	.58
Eigenvalues	5.05	5.33	.61	.72
Variation explained	(남자) 62.88%, (여자) 67.19%	56.08	59.22	6.81 7.98
Alphas	.87	.89	.89	.91

주. 1. 문항은 축약된 내용임. 2. 요인 부하량 .35 이하 생략

Error of Approximation)=.057로 나타나 주요 적합도 지수가 권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부 검사**

**상태 분노: 일반적 분노 양상 vs. 언어적·신체적 양상.** 청소년용 STAXI-2는 상태 분노를 다시 일반적 분노 양상(5문항)과 언어적·신체적 양상(5문항)으로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와 같은 세부 검사에 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요인에 6문항, 그리고 두 번째 요인에 4문항이 포함되었다(남학생 요인 부하량/여학생 요인 부하량). 요인 1: ‘무언가를 던지고 싶다’ (.84/.92),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다’ (.75/.85), ‘소리지르고 싶다’(.74/.79),

‘욕을 퍼붓고 싶다’(.69/.70),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66/.65)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57/.75). 요인 2: ‘화가 난다’(.92/.86), ‘짜증이 난다’(.81/.90), ‘신경질이 난다’(.77/.86), ‘기분이 나쁘다’(.62/.58).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요인이 ‘언어적·신체적 양상’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일반적 분노 양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된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는 ‘언어적·신체적 양상’ 문항보다는 ‘일반적 분노 양상’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5문항으로 ‘언어적·신체적 양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각 5문항과 4문항으로 구성된 상태 분노/세부 검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다시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5에서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뚜

표 6. 남학생과 여학생의 특성 분노 세부 검사의 요인 부하량과 Cronbach's Alphas

세부 검사/문항	요인 1		요인 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b>특성 분노/특질</b>				
화를 쉽게 낸다	.87	.82		
화를 자주 낸다	.73	.83		
순식간에 화가 난다	.68	.61		
불 같은 성질을 지녔다	.66	.79		
욕하는 성질이 있다	.64	.53		
<b>특성 분노/반응</b>				
내가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화가 난다			.79	.72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난다			.71	.87
내 뜻대로 안되면 화가 난다			.60	.67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소리지르고 싶다			.60	.55
내가 잘한 일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면 신경질이 난다			.54	.46
Eigenvalues	4.52	4.99	.62	.59
Variation explained	남자(51.34), 여자(55.78)		45.15	49.88
Alphas			6.19	5.90
	.86	.88	.81	.83

주. 1. 문항은 축약된 내용임. 2. 요인 부하량 .35 이하 생략

렷하게 두 요인으로 구분되어서 나타났으며, 각 세부 검사에 대한 내적 일치도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태 분노의 두 가지 세부 검사가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성 분노: 특질 vs. 반응.** 청소년용 STAXI-2는 특성 분노를 다시 특성 분노/특질(5문항)과 특성 분노/반응(5문항)으로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번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별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각각 시행했으며,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모두 ‘특성 분노/특질’과 ‘특성 분노/반응’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두 세부 검사의 내적 일치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에서 측정하는 특성 분노의 세부 검사가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각각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분노 경험이 2 요인 구조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분노 표현이 3 요인 구조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에서 측정하는 5가지 하위 검사가 타당한 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참고로 본 논문에서 생략하고 있지만 5 요인 전체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2) 더 나아가 남학생과 여학생

별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상태 분노가 상태 분노/일반적 분노 양상과 상태 분노/언어적·신체적 양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특성 분노 역시 특성 분노/특질과 특성 분노/반응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4가지 세부 검사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검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에서 측정하는 5가지 하위 검사와 4가지 세부 검사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해서 각각 내적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서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신뢰로운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요약하면,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지역별, 성별, 학년별로 비교적 균형 있게 표집된 조사에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1에서 선발된 35 문항 가운데 3문항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본 조사 단계로 접근한 점이다.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면 일부분이라도 수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비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미국 출판사와의 계약 기간 등 촉박한 상태에서 곧바로 본 조사 단계로 접근한 것이 다소 아쉽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통계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추가적인 예비 조사 없이도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는 미국판 아동 청소년용 STAXI-2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척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5가지 하위

검사에 관한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검사에서 한국판(남자 집단, 여자 집단)이 미국판(전체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상태 분노), .92, .93 > .87; (특성 분노), .91, .87 > .80; (분노 억제), .84, .85 > .71; (분노 표출), .75, .79 > .70; (분노 조절), .78, .77 > .70. 또한 모든 세부 검사에서도 한국판(남자 집단, 여자 집단)의 내적 일치도가 미국판(전체 집단)의 내적 일치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태 분노/일반적 분노 양상), .89, .91 > .79; (상태 분노/언어적 신체적 양상), .87, .89 > .84; (특성 분노/특질), .86, .88 > .78; (특성 분노/반응), .81, .83 > .71. (한편, 이곳에서 한국판과 미국판의 타당도를 비교하는 것이 복잡해서 생략하지만, 타당도에서도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미국판에 비해서 개선된 척도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체 35문항 가운데 9문항이 교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판 STAXI와 한국판 STAXI-2 개발 과정과 동일한 양상이며, 최소한 정서와 관련된 척도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에 알맞게 개발하기 위한 일부 문항의 교체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관련해서 한국 문화에 알맞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 '역번역' 접근(Brislin, 1970)보다는 '개념 동질성' 접근(Spielberger, 2006)이 적절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삶의 질'에 관한 척도를 개발할 경우 미국에서 적절한 문항(예: 안전한 주거지, 보다 쾌적한 자동차)과 아프리카에서의 적절한 문항(예: 깨끗한 화장실, 충분한 식료품)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안전한 주거

지나 더 쾌적한 자동차 문항을 수백 번 '역번역'하더라도 아프리카 문화에서 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2) 개방식 질문지 등을 통해 국내 청소년들에게 표상되는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에 관한 수집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가 개발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분노 연구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겠다. 그동안 국내에서 청소년용 분노 척도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주로 성인용 분노 검사를 사용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학술 연구 정보서비스(RISS)에서 '청소년, 분노'를 검색해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154건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상담 등에 관한 논문을 제외하고 검사를 사용한 대부분에서 한국판 STAXI를 사용하고 있었다(일부 논문에서 '역기능적 분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 문항으로 묶인 개념이다). 그런데 일부 논문을 살펴보면 중학생에게 (성인용) STAXI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인용) STAXI는 15세에서 65세 연령에 적절한 검사이므로 중학생에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박태현, 김희화(2023)는 중학생(30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성인용) STAXI를 사용한 바 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청소년 분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노 검사를 사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용) STAXI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노 연구를 수행할

4) 국내에서 청소년들의 분노 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STAXI가 거의 절대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한국판 STAXI를 개발한 저자에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반면에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때 청소년용 STAXI-2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sup>4)</sup>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를 활용해서 심리학, 의학, 간호학을 비롯해 교육, 코칭, 조직, 교정, 사회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김희연, 이명훈, 배재남, 김철웅, 유희정, 이정섭 (2015).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를 이용한 한국 청소년의 분노 평가 및 우울과의 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6(4), 288-294. <https://doi.org/10.5765/jkacap.2015.26.4.288>
- 박태현, 김희화 (2023).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 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14(1), 65-85. <http://doi.org/10.21197/JCEL14.1.4>
- 전경구 (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II). *재활심리연구*, 3(1), 53-69.
- 전경구, 노성원, 서경현, 이준석 (2024).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검사(2판). 인사이트.
- 전경구, 서경현, 조영일 (2020). 정서적 스트레스 검사: 성인용. 인사이트.
- 전경구, 이준석, 서경현, 전종국, 최아론 (2025). 한국판 청소년용 STAXI-2. 인사이트.
- Anastasi, A., & Urbina, S. (1997). *Psychological testing* (7th ed.). Prentice Hall/Pearson Education.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https://doi.org/10.1177/135910457000100301>
- Brunner, T. M., & Spielberger, C. D. (2009).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Child and Adolescent (STAXI-2 C/A).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annon, W. B. (1914). The interrelations of emotions as suggested by recent physiological researche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5(2), 256-282. <https://doi.org/10.2307/1413414>
- Chon, K. K., & Hahn, D. W., & Lee, C. H. (1998).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3(1), 18-32.
- Daniel, S. S., Goldston, D. B., Erkanli, A., Franklin, J. C., & Mayfield, A. M. (2009). Trait anger, anger express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8(5), 661-671. <https://doi.org/10.1080/15374410903103494>
- DeSteno, D., Gross, J. J., & Kubzansky, L. (2013). Affective science and health: The importance of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Health Psychology*, 32(5), 474-486. <https://doi.org/10.10>

첫째, 일부 소수의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시도한 한국판 STAXI를 사용하고 있는 논문(예: 김희연 외, 2015)이 있는바, 미국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국내 출판사는 인사이트로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미국판 STAXI를 단순히 번안한 검사로는 국내 문화에 알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일부 논문에서 참고 문헌을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었다(박태현, 김희화, 2023). 이전 논문(전경구 외, 2024)에서 밝혔듯이 한국판 STAXI의 최종 개발 연구는 Chon 등(1998)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인용이 필요하겠다. 셋째, 일부 연구에서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을 묶어서 '역기능적 분노 표현'이라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분노(경험, 표현)는 나름대로 적절한 기능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기능적 분노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 37/a0030259
- Gentry, W. D. (1999). *Anger-free: Ten basic steps to managing your anger*. William Morrow and Company.
- Goldstein, N. E. S., Serico, J. M., Romaine, C. L. R., Zelechowski, A. D., Kalbeitzer, R., Kemp, K., & Lane, C. (2013). Development of the juvenile justice anger management treatment for girls. *Cognitive and Behavior Practice, 20*(2), 171-188. <https://doi.org/10.1016/j.cbpra.2012.06.003>
- Howell, C. C., Rice, M. H., Carmon, M., & Hauber, R. P.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anxiety, anger, and blood pressure in children. *Applied Nursing Research, 20*(1), 17-23. <https://doi.org/10.1016/j.apnr.2005.10.006>
- Hughes, L., Taylor, R. M., Beckett, A. E., Lindner, O. C., Martin, A., McCulloch, J., Morgan, S., Soanes, L., Uddin, R., & Stark, D. P. (2024). The emotional impact of a cancer diagnosis: A qualitative study of adolescent and young adult experience. *cancers, 16*(7), 1332. <https://doi.org/10.3390/cancers16071332>
- Jackson, J., Kuppens, P., Sheeber, L. B., & Allen, N. B. (2011). Expression of anger in depressed adolescents: The role of the family environment. *Journal Abnormal Child Psychology, 39*(3), 463-474. <https://doi.org/10.1007/s10802-010-9473-3>
- Kaczurkin, A. N., Asnaani, A., Zhong, J., & Foa, E. B.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e anger on treatment outcome in female adolescents with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9*(4), 325-331. <https://doi.org/10.1002/jts.22116>
- Lica, M. M., Papai, A., Salcudean, A., Crainic, M., Covaciu, C. G., & Mihai, A. (2021). Assessment of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with Insulin-Dependent Diabetes (IDD) and the impact on treatment management. *Children, 8*(5), 414. <https://doi.org/10.3390/children8050414>
- Mishel, E. R., Leen-Feldner, E. W., Knapp, A. A., Bilsky, S. A., Ham, L., & Lewis, S. (2014). Indirect effects of smoking motives on adolescent anger dysregulation and smoking. *Addictive Behaviors, 39*(12), 1831-1838. <https://doi.org/10.1016/j.addbeh.2014.07.029>
- Nichols, K. H., Rice, M., & Howell, C. (2011). Anger, stress and blood pressure in overweight children.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6*(5), 446-455. <https://doi.org/10.1016/j.pedn.2010.05.002>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sup>nd</sup> Ed.)*. McGraw-Hill.
- Özyurt, G., Tuncel, T., Elicik, K., Şenol, H. D., Öztürk, Y., & Özdoğru, E. E. (2021). Adolescents with asthma reported more peer victimization, more anger repression, and less anger expression. *Journal of Asthma, 58*(10), 1307-1313. <https://doi.org/10.1080/02770903.2020.1782428>
- Spielberger, C. D. (1988).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ielberger, C. D. (2006). Cross-cultural assessment of emotional states and personality traits. *European Psychologist, 11*(4), 297-303. <https://doi.org/10.1027/1016-9040.11.4.297>
- Streiner, D. L., & Norman, G. R. (2008). *Health measurement scales: A practical guide to their development and use*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9231881.001.0001>
- Tryastuti, D. (2022). The effectiveness of anger management training in reducing bullying behavior among school-ag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and Health Services, 5*(2), 203-209. <https://doi.org/10.35654/ijnhs.v5i2.598>
- Walsh, L. M., Wolk, C. B., Haimes, E. M. B., Jensen-Doss, A., & Beidas, R. S.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anxiety

symptoms in youth with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4(2),  
117-133. <https://doi.org/10.1080/23727810.2017.1381930>

원고접수일: 2025년 8월 20일

논문심사일: 2025년 9월 12일

게재결정일: 2026년 2월 1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6. Vol. 31, No. 2, 539 - 557

##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for Adolescent

Kyum Koo Chon	Joonsuk Yi	Kyung Hyun Suh	Chong Gouk Chun	Aron Choi
Korean Stress Management Center	Department of Human Rehabili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aegu Cyber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for adolescent (STAXI-2 for adolescent), designed to measure state anger (10 items), trait anger (10 items), anger-in (5 items), anger-out (5 items), and anger-control (5 items). An attempt was made to construct a pilot scale based on a variety of resources (e.g., STAXI-2 for child and adolescent, open-ended questionnaire on anger, review of 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XI/STAXI-2). As a result, a pilot scale was composed of 95 items, nearly three times the original scale. In Study 1, we examin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ilot scale in student sample nationwide ( $N = 359$ ). Exploratory factor analyses and item-total correlations showed problematic factor structure. Thus, we deleted inappropriate items and replaced 9 items out of 35 items. In Study 2, we examin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econd version of 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XI-2 for adolescent in student sample nationwide ( $N = 1,186$ ). Exploratory factor analyses showed clear-cut factors for five subscales: state anger, trait anger, anger-in, anger-out, and anger-control. Further exploratory factor analyses showed that there are also two subscales under state anger (i.e., state anger/general mode vs. state anger/verbal-physical mode) and that there are also two subscales under trait anger (i.e., trait anger/temperament vs. trait anger/response). In addition, all subscales revealed satisfactory level of reliability. In sum, results provided support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XI-2 for adolescent. Thus, the Korean adaptation of the STAXI-2 for adolescent is a useful instrument in the area of psychology, medicine, nursing, education, counseling, criminal justice, welfare facilities, among others.

*Keywords:* State Anger, Trait Anger, Anger-In, Anger-Out, Anger Control, Adolescent